

[ 종합 ]

광주지하철역사 중국산 석재 시공 원청업체 4곳

“재시공 대신 공사비 부담”

市 “의견수합 후 별도업체 선정여부 결정”

중국산 저질석재가 사용된 광주 지하철역사를 시공했던 원도급업체 8곳 중 4곳이 재시공 대신 공사비 부담 전액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시공, 중국산 석재가 들어간 지하철 역사는 광주시가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 재시공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4개 업체도 재시공 비용 납부를 택할지, 시의 당초 요구대로 재시공 명령에 응할지, 소송을 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광주시 지하철건설본부에 따르면 중국산 저질석재 시공을 한 8개 업체중 광주지역 3개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가 최근 직접 재시공을 하는

대신 재시공 비용을 내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지난달 이들 4개 업체를 비롯한 8개 업체들은 시의 중국산 석재 시공 부분에 대한 ‘재시공 계획서’ 제출 요구에 모두 ‘중국산 석재와 한국산 석재의 차액’만을 내겠다는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1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중국산 석재 시공의 직접적인 책임이 하청업체에 있지만 원청업체인 자신들이 근본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한 것이다.

나머지 4개업체는 시에 최종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중 3개 업체는 재시공비 납부쪽으로 의견을 모으고있으며 1개업체만이 ‘중국산석재와 한국산 석재간의 차액’을 내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문제된 부분을 전면 재시공할 경우 중국산 석재가 사용된 13개 역사에 대한 총 공사비는 24억여원으로 추정되지만 국내산과 중국산의 차액만 부담할 경우는 4억여원으로 6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게 건설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광주시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는 “시의 방침은 중국산 석재 시공 부분에 대한 전면 재시공이다”면서 “조만간 8개 업체의 최종 의견을 수합해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 골프장 건설 행정처리 기간 40일만에 ‘OK’

전남도가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 골프장 건설 행정절차를 40일만에 끝내는 과격적인 행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골프장 건설의 최대 걸림돌인 행정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최근 지역계획과장을 팀장으로 한 골프장 건설지원 태스크포스(T/P)팀을 구성했다.

태스크포스팀 24명 구성 중앙부처 등 직접 방문

9개 분야 24명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은 농지와 산림, 환경, 체육시설, 건설 등 각 분야로 나눠 관계 공무원이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에 접수된 서류는 최소 95일에서 45일 이내 처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전남도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11일 접수된 장흥 다이너스티 등 골프장 2곳에 대한 심의를 의결, 40여일만에 사실상 행정처리를 마무리 지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2006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

114개대 2만7천587명 선발

농어촌 특별전형 45개대 2천917명 학생부 100% 반영하는 대학 28곳

7월13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가는 2006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에서는 114개 4년제 대학이 2만7천587명을 선발한다.

〈관련기사 8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202개 4년제 대학 중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 나서는 114개대의 전형계획을 취합, 20일 발표했다. 수시1학기 모집인원은 올해 전체 모집계획 인원(2005학년도 정원 기준)인 38만9천584명의 7.1%에 해당한다.

실용형태별로는 국·공립이 11개대 1천843명이고 사립이 103개

대 2만5천744명이며 전형유형별로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전형이 55개대 8천355명, 특별전형이 103개대 1만9천232명이다.

특별전형은 특기자 13개대 221명, 취업자 6개대 323명 등이고 대학 독자 기준에 의한 전형으로 교장·교사 추천자(30개대 3천841명), 내신우수자(13개대 2천178명), 어학우수자(8개대 364명), 만학도·주부(10개대 138명), 해당 지역고교 출신자(13개대 395명) 등을 뽑는다.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농어촌 학생 45개대 2천917명 ▲실업계

고교 졸업자 51개대 2천823명 ▲특수교육대상자 7개대 115명 ▲재외국민·외국인 5개대 177명을 선발한다. 가톨릭대, 숙명여대, 전북대 등 3개대는 전공약속제로 174명을 뽑는다.

원서접수는 지난해까지 6월1일부터 시작됐으나 올해에는 고교 수업 분위기를 가급적 해치지 않기 위해 7월13일부터 시작돼 22일까지 대학별로 실시된다.

일반전형은 학생부만 100% 활용하는 대학이 28곳, 학생부에 면접·구술까지 보는 대학이 14곳, 학생부와 면접, 논술고사를 반영하는 대학이 4곳 등이고 특별전형은 학생부와 면접을 위주로 하고 경력이나 자격, 입상실적, 실기시험,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을 추가로 본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아동대상 성범죄자 61명 공개

청소년위, 성범죄자 학교 등 취업 제한키로

아동과 청소년을 가르치거나 통학시키는 등 직접적인 보호책임을 맡고 있는 교사나 학원강사, 유치원 운전기사 등의 성범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 확정후 5년간 각급 학교와

유치원, 학원, 캠프,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하며 위반시 해임요구를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청소년위는 20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234개 시·군·구별 성범죄자 명단을 포함해 제8차 청소년대상 성범죄

자 532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광주시는 5개 구에 모두 23명의 신상공개자가 있었으며 전남에선 고흥·곡성·신안·완도·장성·장흥군을 제외한 전 시군에 38의 대상자가 나왔다.

청소년위는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형이 확정된 제8차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중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을 맡은 직업 종사자는 31명이었다. 이 중 21명이 자신이 직접 가르치거나 통학시키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승용차 특세세 인하조치 연말까지 연장키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 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승용차 특세세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소비심리 위축 차단 및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특세세 탄력세를 적용사항을 이달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3월24일부터 같은해 연말까지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를 취했으나 내수회복을 위해 이달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에 조대현 변호사 내정



열린우리당은 20일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대현 변호사를 내정했다. 조 변호사는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될 예정이다. 용산고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7기(사시 17회)로 노무현 대통령과 동기생이다. 조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 지낸 뒤 퇴직했고, 현재 노 대통령의 사위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에 소속돼 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아는 적이나 말지

쌀협상 비준 저지...논 갈아엎기 시위

쌀 협상 무효와 국회 비준 저지, 이 연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농민 집회와 시위가 20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 전국 각 지역 농민단체가 주관한 이날 시위에서 농민들은 농기계를 동원해 논을 갈아엎거나 거리 행진, 화형식 등의 실력행사에 나섰다.

광주시 광산구 삼도(800평), 고흥 도덕면 문관리(4천평), 순천 풍덕동(500평)에서 농민들은 트랙터로 모내기 논을 갈아엎었다. 보성과 진도, 화순, 전북 정읍·순창

등에서는 농민들이 농기계를 트랙터 등을 동원, 도로를 점거하며 서행 시위를 벌여 교통이 일시 마비되기도 했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주요 농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단식 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다.

전농은 “쌀비상 대책위 차원에서 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 각 관결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벌이는 한편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10만 규모의 대규모 상경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정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험회의를 가졌으나 쌀협상 비준 동의를 이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장인 우리당 조일현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6월 국회의 남은 기간이 짧아 회기 내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쌀 비준동의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순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2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지평동 유시훈(46)씨의 논에서 농민들이 쌀협상 무효를 주장하며 트랙터를 동원, 600평의 모내기 논을 갈아 엎고 있다. /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인재를 찾습니다' (We are looking for talent) by Kinsil Construction Co., Ltd. listing various job positions and qualifications.

Advertisement for '공시 최고' (Best Public Notice) services, including legal consultation and document preparation.

Advertisement for '충성교회신용협동조합 파산종결 공고' (Chungseong Church Credit Cooperative Bankruptcy Final Notice).

Advertisement for '산행' (Hiking) services, listing various hiking routes and guides.

Large advertisement for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16th Real Estate Broker Exam Preparation) by YH GOSI, featuring a list of instructors and exam details.